

시각 및 중증 장애인, 도서 대출(반납) 택배 무상 이용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기획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와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6월 29일(수)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에서 장애인의 지식 정보 접근 기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우편 서비스 시범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시범 사업은 ‘책나래’로 불린다. 나래는 날개의 방언으로 이 사업의 이름은 어려운 이를 찾아 가겠다는 의미를 담아 만들어졌다.

이번 업무협약은 사회의 대표적 지식정보기관인 도서관과 전국을 하나로 연결하는 우편 물류망을 보유하고 있는 우체국이 장애인에게 지식 정보 이용 기회를 확대·제공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국립중앙도서관)와 지식경제부(우정사업본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우선, 가장 주목할 점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 및 중증(1·2급) 청각·지체 장애인 43만여 명이, 전국 공공도서관과 장애인도서관 800여 도서관의 도서관자료(전자도서, 일반도서, 카세트테이프, CD, Video 등)를 우체국 택배를 통해 무상으로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

게 된 점이다.

이번 업무협약에서 지식경제부는 우체국 택배요금을 일부 감면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택배요금을 부담함으로써 해당 장애인은 집에서 무료로 도서관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작은도서관 통계관리 및 운영 활성화 관련 컨설팅 실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기획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지난 6월 20일(월)부터 7월 8일(금)까지 16개 시·도 도서관정책 담당자 및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 작은도서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작은도서관 통계관리 및 운영 활성화’ 관련 컨설팅을 추진하였다. 6월 20일(월) 서울, 인천 지역을 시작으로, 6월 21일(화) 전남, 7월 1일(금) 영남권역, 7월 5일(화) 호남·충청권역, 7월 8일(금) 수도권, 강원·제주권역 등 총 6차례에 걸쳐서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전국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및 운영 활성화 추진방향 설명과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조사’의 시·도별, 지방자치단체별 1차 결과 데이터의 제공,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http://www.libsta.go.kr>)을 통한 작은도서관 통계

데이터 입력 및 관리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이번 컨설팅은 전반적으로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및 운영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고, 2010년 12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진행될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결과는 향후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에 등록될 예정이다. 또한 실효성 있는 작은도서관 통계조사의 지속적인 수행을 위해 앞으로 각 지자체 담당자를 통계입력·관리자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전국 작은도서관 통계조사가 마무리되는 오는 8월이 되면 전국에 산재하는 작은도서관(문고 포함)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하여 구체적이며 실효적인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컨설팅 지원 사업 대상 12개관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단장 황두연)은 6월 23일(목) '2011년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컨설팅 지원 사업' 대상 도서관으로 12개관을 선정하였다.

지원 대상 도서관은 도곡아트랑도서관, 서초구립반포도서관(이상 서울), 장덕도서관(광주), 부곡도서관, 이천시공공도서관, 포천시립영북도서관(이상 경기), 동해도서관(강원), 부여군굿뜨래공공도서관(충남), 경북도립청도공공도서관, 영천시립도서관(이상 경북), 죽림농어촌공공도서관, 진해중부도서관(이상 경남)으로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컨설팅 사업은 전문기술 및 인력이 도시지역보다 취약한 농산어촌지역을 우선으로 하되, 컨설팅의 실효성이 가장 나타날 수 있는 기초설

계 이전 단계의 도서관과 준공을 앞둔 도서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사업기간은 6월말부터 12월말까지이며, (사)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에서 주관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공공도서관 건축과 공간구성 컨설팅 뿐 아니라 장서구축, 조직구성, 예산편성 등 운영전략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도서관 건립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친환경 에너지절약형 도서관 건립 모델을 정립하여 공공도서관이 지역별 교육·문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는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동 사업을 계속 확대 추진하여 많은 도서관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사제공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기획단

한국도서관협회장 이·취임식 개최



한국도서관협회(회장 남태우)는 7월 5일(화)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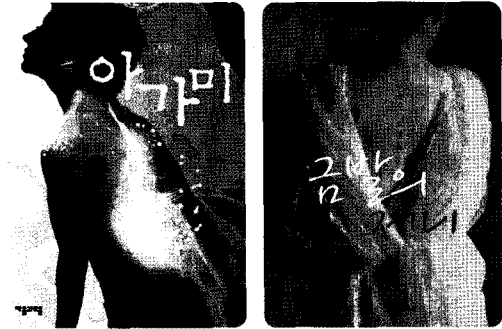
이·취임식에서는 신임·전임회장의 인수인계서 서명과 협회기 전달식이 있었고, 이은철 전임회장에게 재직기념패를 증정하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남태우 신임회장(임기 2011.7.1.-2013.6.30.)은 취임사를 통해 회원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도서관협회가 될 것임을 밝히고 전임 회장단에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한편 이은철 전임회장은 지난 2년을 정리하고 신임회장단의 앞날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임·전임 임원 및 전문위원장 30여명이 참석하여 전임 회장단의 노고를 치하하고 새 회장단의 취임을 축하하였다.

2011년 2/4분기 우수문학도서 선정·발표

한국도서관협회(회장 남태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오광수)가 주최하고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후원하는 소외지역(계층) 우수문학도서 보급사업의 2011년 2/4분기 우수문학도서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우수문학도서 선정 심의회의는 7월 15일(금)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연수관 소강의실에서 문인



수, 조정, 허연, 장이지(이상 시), 이시백, 윤대녕, 정지아(이상 소설), 김진경, 이미애(아동·청소년문학), 신현림, 김재용(이상 수필), 이혜원, 임홍배(이상 평론·희곡) 각 장르 전문가 13명과 시민평가단으로 윤희운 대구대학교 교수(소설)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도서는 시 14종, 소설 14종, 아동·청소년문학 17종, 수필 6종, 평론·희곡 4종으로 모두 55종 55권(목록은 본지 43~44쪽 참조)이며, 전국 문화소외지역(계층) 보급처 2,500여 곳에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2011 전국청소년시낭송축제 참여단체 지도교사 사전워크숍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오광수),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와 전북작가회의(회장 안도현)가 주관한 2011 전국청소년시낭송축제

참여단체 지도교사 사전워크숍이 6월 25일(토) 최명희문학관에서 개최되었다.

지도교사 및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한 이번 사전 워크숍은 김승환 교육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교사 및 초대작가 축제 참여후기 발표와 안도현 초대 작가의 특강, 교사 시낭송 경연 등이 진행되었다.

한국도서관협회 광주·전남지구협의회, 2011년도 정기총회 및 세미나 개최



©한국도서관협회 광주·전남지구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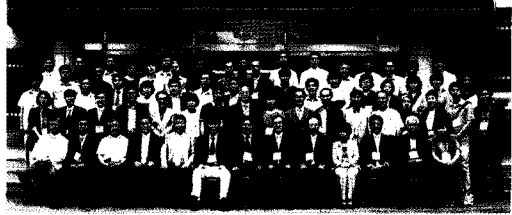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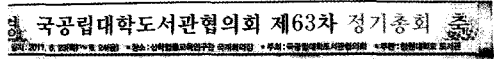
한국도서관협회 광주·전남지구협의회(회장 김경옥)는 6월 23일(목) 나주 중흥골드스파리조트에서 2011년도 정기총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협의회 회원 15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김경옥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의 축사가 있었고 우수도서관인상 시상과 사업보고, 셀프 리더십을 주제로 한 특강 등이 진행되었다.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제63차 정기총회 및 세미나 개최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회장 예병준)는 6월 23일(목)부터 24일(금)까지 창원대학교에서 제63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협의회 회원 80여명이 참석한 이번 정기총회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에서는 2010년 사업 및 결산보고와 2011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가 있었으며, 도서관 공간 구성에 관한 특강과 신기술전망 발표가 있었다. 한편 7월 1일(금)부터 2년간 전남대학교가 회장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 2011년도 학술세미나 개최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회장 박계숙)는 6월 23일(목)부터 24일(금)까지 강원도 대명리조트에서 2011년도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회원 및 정보관리종사자 130여명이 참석한 이번 학술세미나는 “스마트 시대의 도서관 서비스 전략”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민병원 목원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교수의 “미래의 도서관 정보서비스 - Smart Library”라는 주제의 초청강연

을 시작으로 김경아 포항공과대학교도서관 사서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정보서비스”를, 류범중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지식기반실장이 “정보서비스 시스템 개발 : KISTI 사례 중심”에 대해 발표하는 등 주제발표와 2008~2010년도 전문도서관 운영평가 결과 분석 발표 등이 있었다.

기사출처 :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 제82회 실무자 세미나 개최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회장 김도훈)는 6월 22일(수)부터 24일(금)까지 제주도 그랜드호텔에서 제 82회 실무자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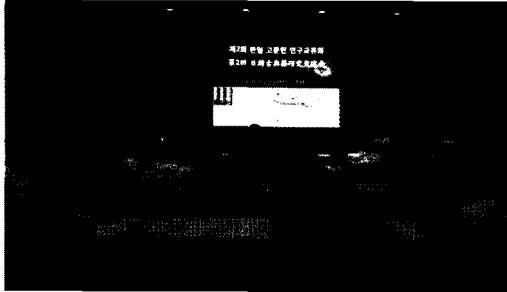
“신학도서관의 협력과 자원공유”를 주제로 개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

최한 이번 세미나에는 협의회 실무자 30여명이 참석하였다. 서은경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 교수가 “협동 장서개발과 구축을 위한 도전 및 과제”를, 안교성 장로회신학대학교 연사신학과 교수가 “신학자료 분류를 위한 신학의 이해”에 대해 강연하였으며, 주제토론과 신기술 동향 소개 등이 진행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 병영·교도소도서관 대상
'찾아가는 사서교육' 실시**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관장 우진영)은 병영·교도소도서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서교육'을 실시하였다. 7월 11일(월)부터 12일(화)까지는 용인 법무연수원에서 교도소도서관을 대상으로, 19일(화)에는 원주 제1군사령부에서 병영도서관을 대상으로 비전문가를 위한 기초적인 도서관 운영 실무 교육, 공공도서관과의 협력방안, 도서관운영 프로그램교육 등이 진행되었다.

이번 '찾아가는 사서교육'으로 그간 시설에 치중하던 병영도서관과 교도소도서관이 서비스 중심의 질적 성장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향후 병영·교도소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선진 병영문화, 교정문화 조성에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사제공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제2회 한일 고문헌 연구
교류회 개최**

국립중앙도서관(관장 우진영)은 일본 국문학연구자료관과 공동으로 7월 19일(화)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제2회 한일 고문헌 연구교류회를 개최하였다.

고문헌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이번 연구교류회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일본고서 조사결과 보고가 있었고 호리카와 다카시 게이오대학교 교수가 "일본고전적의 특징과 일본서지학"을, 봉성기 국립중앙도서관 고전운영실 사무관이 "한국의 금속활자"에 관해 발표하였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사이버도서관, 개관 1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경기도사이버도서관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은 6월 21일(화) 경기문화재단 다산홀에서 개관 1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축하 영상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도서관 구축방안 모색"을 주제로, 경기도 내외 도서관 종사자와 연구자 등 1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남태우 한국도서관협회 회장이 "경기도 도서관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였고 송재술 경기도사이버도서관 팀장이 "경기도 디지털도서관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하였으며, 패널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기사제공 : 경기도사이버도서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1 정보자원 공유 전문가 포럼 개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원장 박영서)은 6월 23일 (목)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2011 정보자원 공유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였다.

“전자정보시대의 사서 역할”을 주제로 개최한 이번 포럼에서는 남영준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가 “정보서비스 최근 동향”을, 황혜경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선임연구원이 “KISTI 원문 제공서비스 현황 및 제언”에 관하여 발표하였고 지정토의와 질의응답이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서업무 수행하는 기능직 공무원에 사서수당 지급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가 사서직 공무원에게만 사서수당을 지급하고 사서직류 기능직 공무원에게는 사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서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 공무원에게도 사서수당을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지난해 9월 진정인 문 모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사서직류 기능직공무원으로서 사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사서수당을 사서직공무원에게만 지급하고 있다”는 진정을 제기한 것에 관해, 행정안전부는 사서직 공무원과 기능직 사서직류 공무원의 임용요건이 다르고 채용 후 담당업무도 차이가 있어 특수직무수당에 해당하는 사서직 수당을 기능직 사서직류 공무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능직 사서직류 공무원이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기능 8급의 경우 준사서 자격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기능 6급 및 기능 7급의 경우 정사서 이상의 자격을 요건으로 하는 등 기능직 공무원도 사서업무 수행을 위해 전문성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어 기능직 사서직류 공무원에게 사서업무의 주된 역할 수행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실제 진정인이 근무하는 지역 공무원들의 업무분장 내용을 통해 기능직 사서직류 공무원의 업무가 단순한 기능적 보조에 그치지 않고 사서업무의 주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0년 1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사회복지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이라면 특수직무수당을 지급하게 하고 기술직렬 기능직 공무원에게도 기술정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업무 수행여부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선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수업무수당의 종류는 총 10종에 이르고 수당의 지급여부는 실제 그 직무를 수행하는 지 여부가 관건이므로 공무원 직렬의 종류와 상관없이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이라면 해당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기사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중국 최대 규모의 시각장애인도서관, 중국 시각장애인문화정보서비스센터 설립

중국 최대 규모의 시각장애인도서관인 중국시각장애인문화정보서비스센터가 설립되었다.

공산당 창립 9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한 이 도서관은 1,600만명 이상의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 25만권과 음성도서 66만장 등을 서비스하게 된다. 또한 자료보존 공간과 열람실, 교육 및 연수 공간이 있으며, 시각장애인 문화 체험관과 촉각 박물관 등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다.

기사출처 : <http://www.people.com.cn/h/2011/0628/c25408-1-4145689751.html>

일본도서관협회, 새로운 웹사이트 공개



©JL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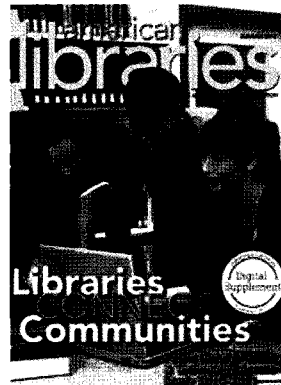
일본도서관협회(JLA)가 7월 11일(월) 새로운 웹사이트(<http://www.jla.or.jp>)를 공개하였다. 새로운 웹사이트에서는 회원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협회의 활동과 각종 보고서, 통계 자료 등을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미국도서관협회, 2011년 연차 대회 개최

미국도서관협회(ALA)는 6월 23일(목)부터 28일(화)까지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에서 2011년

연차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에는 1,600여 개의 세션이 진행되었고 720여개의 회사가 참여한 전시회가 진행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http://www.alaannual.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국도서관협회, 2010-2011년 공공도서관의 인터넷 서비스 등에 대한 조사 결과 공개



©AL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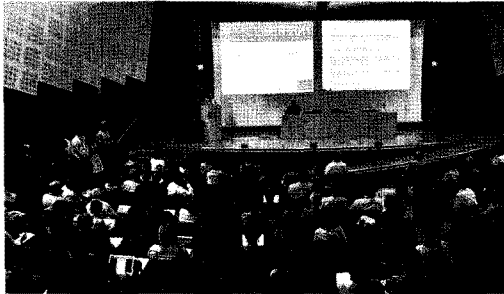
미국도서관협회(ALA)가 매년 공개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인터넷 서비스 등에 대한 조사 “Libraries Connect Communities : Public Library Funding & Technology Access Study” 2010-2011년 현황이 공개되었다.

이 보고서에는 공공도서관의 99%가 공용 컴퓨터에 대한 액세스와 인터넷을 제공하고 있으며, 도서관의 87% 이상이 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12%가 전자책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은 구직과 전자정부 서비스, 전자책 서비스 등을 통해 지역의 기술센터로 활용되고 있지만, 예산 삭감으로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축소는 피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http://www.ala.org/ala/research/initiatives/plftas/2010>)

_2011/index.cf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사출처 : <http://ala.org/ala/newspresscenter/news/pr.cfm?id=7447>

유럽연구도서관협회, 제40회 연차 대회 개최



©LIB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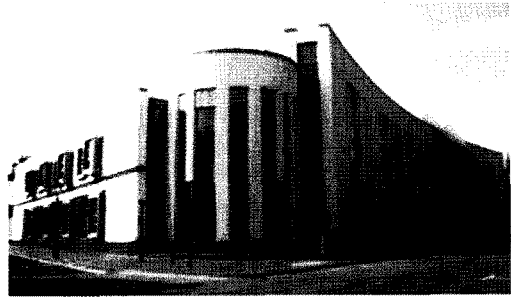
유럽연구도서관협회(LIBER)가 6월 29일(수)부터 7월 2일(토)까지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제40회 연차 대회를 개최하였다.

“Getting Europe ready for 2020 : the library’s role in research, education and society”를 주제로 개최한 이번 대회에서는 40여 개의 세션이 진행되었으며, 35개국의 4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http://bibliotecnica.upc.edu/LIBER2011>)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사출처 : <http://www.upc.edu/saladeprensa/saladeprensa/aldia/mes-noticies/uns-400-participants-a-la-liga-de-les-biblioteques-europees-de-reerca-liber>

영국도서관정보전문가협회, Libraries Change Lives Award 2011 발표

영국도서관정보전문가협회(CILIP)는 7월 14일(목) “Libraries Change Lives Award 2011”에 켄트카운티의회도서관(Kent County



©Kent County Council

Council)의 “Making the Difference” 프로젝트를 선정한다고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학습 장애를 가진 성인을 대상으로 독서 활동 및 IT 지원, 고용 지원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학습 장애를 가진 이용자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학습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지역 커뮤니티에서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기사출처 : <http://www.cilip.org.uk/news-media/Pages/news110714.aspx>